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

연구자 하 영 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목 차 —

- 논문개요
- I. 서 론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III. 이론적 배경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V.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

· 논문개요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원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영아돌보기 행동, 영아의 행동조직, 육구의 충족 및 그러한 육구에의 민감성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고 영아의 개별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간호중재를 통해 원만한 모·아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은 서울시내 3개 종합병원 산과병동 및 3개 조산소에서 자연분만한 임신이나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산과력을 가진 건강한 모와 단산으로 출생한 건강한 생후 4~6주의 영아 28명(60명중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로 부득이 누락된 수를 제외함)을 대상으로 1986년 12월 1일부터 1987년 5월 15일까지 5개월 반에 걸쳐 가정방문을 통해 수유(모유 혹은 인공영양)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아의 일련의 유희적 상호작용을 모가 끝날때까지(5분간) 비디오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이때 소형의 마이크를 모에게 장치하여 모·

아의 어조나 음성과 말의 내용을 자세히 녹음하였으며 수집된 비디오 테이프에 근거하여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척도(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MIPS)에 준해 2명의 관찰자에 의해 세밀히 관찰, 분석 및 병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여 조사대상 모·아의 일반적 특성과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은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모의 행동패턴, 영아의 행동패턴, 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 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 및 문항별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패턴과 조사대상 모·아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t 검증과 F 검증 그리고 연구도구의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서는 Chrombach α 를 사용하였으며 그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가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희적 행동(모의 행동패턴)은 총 10개문항으로 평균 점수 34.05, 표준편차 9.58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상냥한 표현, 부드럽고 온화한 보살핌, 시각적 상호작용, 애정적인 어조,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 하려는 노력등 온화한 보살핌과 정서적 반응은 잘하는 편이었으나 영아의 자발적인 활동의 견제, 영아를 자극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자극되거나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교대로 자극을 주지않고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혼들어주기, 잡아늘이기, 운동시키기 중 1~3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등 의미없는 반복을 보였으며 기술이나 혼란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 과업중심 활동의 반응은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이는 영아를 포로싸는 전통적 육아방식과 성장,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자유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영아가 그의 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영아의 행동패턴)은 총 3개분항으로 평균점수 3.98, 표준편차 0.75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깨어있거나 적극적으로 주위를 탐색하거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거나 즐거워하는 등 영아의 상태조절과 조직통제는 잘하는 편이었으나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거나 시각적 교환의 회피등 시각적 상호작용은 잘못된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응시 및 추적능력의 발달이 2개월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사대상 영아들이 아직 이러한 능력이 미발달된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3. 모와 영아가 동시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은 총 3개분항으로 평균점수 8.89, 표준편차 3.76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아가 즐거운 교류를 하거나 상대에게 말, 몸짓, 흥분된 감정의 교류, 무언의 짜증에 대한 반응으로 상호작용을 멈추는등 같은 방향으로의 공동조절과 감정의 교류는 잘하는 편이었으나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모와 영아중 어느 한쪽으로 부터 시작하더라도 상대로부터 반응이 없는등 동시적 상호작용은 잘못된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행동적 패파토리, 영아의 각성상태 유지를 위한 노력 및 반응성에 있어 모·아의 동시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4. 모·아가 상호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희적 행동(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은 총 16개분항으로 평균점수 53.78, 표준편차 14.99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유희적 상호작용의 방식에 있어 쾨번, 피부접촉, 발성, 얼굴표정등 모가 자기자신을 사용하기 보다는 장난감, 음악등의 유희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등 비생물과의 유희적 상호작용을 하였는데, 이는 사물에 대한 시각적 관심은 응시 및 추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되며, 또한 조사대상 영아들이 손과 눈의 협동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단계에 있다는데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사려된다.

5.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중 초산모의 교육수준, 유희 도구의 사용여부 및 영아의 성별에 따른 문항별(1~16), 모의 행동패턴($F=0.6104$, $T=0.81$, $T=0.26$), 영아의 행동패턴($F=0.7821$, $T=0.49$, $T=0.06$), 모아의 동시적($F=0.9929$, $T=0.25$, $T=0.38$) 및 상호적 행동패턴($F=0.8378$, $T=0.50$, $T=0.06$)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모·아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밀접한 관계로 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로서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영아의 입장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욕구의 충족과 앞으로의 생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관계를 습득하게 된다. 특히, 영아의 발달은 출생전의 생물학적, 유전적 잠재성보다는 출생후의 환경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중의 하나로 모임이 지적되고 있다(Wash, Gruen, 1984). 이러한 모·아의 관계는 사회화과정의 시초이며 동시에 장차 독특한 한 인간으로 발달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모·아의 관계는 모에서 영아에게로만 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돌봄을 제공하는 모의 행동과 그러한 돌봄에 반응하는 영아의 행동 및 양자간의 행동 반응과 상호조정은 모가 미치는 자극에 대해 영아의 상태반응의 변화(state response change)를 일으키는 능력을 발달시킨다(Brazelton, 1982). 따라서 생물적, 비생물적 혹은 사회적 자극과 더불어 모·아의 상호작용은 영아로 하여금 체온조절, 소화기능, 심장기능의 안전상태등 자율적 개통에 대한 장애를 극복함과 더불어 의식상태의 안전한 조직과 사회화를 촉진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의 한 기본단위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모는 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영아에 대한 자극과 돌봄의 행동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모·아의 상호작용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모·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Egeland의 수유 및 놀이관찰, Price의 수유상황에서의 모·아 민감성 사정(AMIS), Barnard의 교육 및 수유 사정(NCAP), Osofsky의 수유 및 자극에 대한 모·아의 평정, Brazelton의 안면대 안면의 상호작용등 수유 및 자유놀이를 중심한 초기 모·아(생후 1개월 이내)의 상호작용과 Greenspan-Lieberman의 자유놀이에서의 모·아 상호작용 관찰체계, Crittenden의 모·아 행동 코딩체계, Brownwich의 부모 행동의 변화와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측정등 후기 모·아(생후 3개월~6개월)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편, 생후 1개월~3개월의 초기 모·아의 유희적상호작-

용에 관한 연구는 Thompson, Baird, Goodman, Bryant 및 Walker에 의한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MIPIS) 등 비교적 적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 모·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수유를 중심으로 한 초기 영아(생후 1개월 이내)에 관한 방(1983), 한(1986) 등의 연구가 있을뿐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원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돌보는 행동, 영아의 행동조치, 육구충족 및 그러한 육구예의 민감성등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고 영아의 개별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간호중재를 통해 원만한 모·아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데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생후 4주~6주된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본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질문과 같다.

1. 모가 그의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2. 영아가 그의 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3. 모와 영아가 동시에 나타내는 상호적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4. 유희적 상호작용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상에서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이란 생후 4주~6주의 모·아간의 생물적, 비생물적 혹은 사회적 자극과 더불어 수유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련의 상호적 행동반응 및 조절을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서울시에 3개 종합병원 산과병동 및 3개 조산소에서 자연분만(질식분만)한, 임신이나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산과력을 가진 건강한 모와 만삭으로 출생한 건강한 생후 4~6주의 영아 28명(60명중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로 부득이 누락된 수를 제외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 본 연구에 있어 자료수집은 1986년 12

월 1일부터 1987년 5월 15일까지 5개월 반에 걸쳐 실시되었다. 서울시내 3개 종합병원 산과병동 및 3개 조산소에서 분만한 모를 1차적으로 직접 병원으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해 줄것을 요청하고 등의 승락서를 받았다. 그다음 2~3주 후에 전화를 통해 면접일을 확인한 후 개개의 가정을 방문하여 비디오 촬영의 가능성과 수유시간 및 하루중 영아가 깨어있는 시간을 확인한 후 자료수집을 위한 비디오 촬영일시를 확정하였다. 그후 4~6주 사이에 확정된 비디오 촬영일시에 따라 개차가정을 방문, 수유(모유 혹은 인공영양 무관)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아의 일련의 유희적 상호작용을 모가 끝날때까지(약 5분간) 비디오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이때 소형의 마이크를 모에게 장치하여 모·아의 어조나 음성과 말의 내용을 자세히 녹음하였다.

수집된 비디오 테이프에 근거하여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척도에 준해 2명의 관찰자에 의해 세밀히 관찰, 분석 및 평정하였다. Walker는 이 도구의 내재일광성의 신뢰계수를 0.93(경산부), 0.88(초산부)로 보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신뢰계수는 0.97이었다. 또한 연구자와 관찰자간의 관찰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전 2일동안 교육용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비디오 테이프(1283 DB T-60, Type I, II, copy 3, MIPIS Training Tape, Maxell, VHS, made in Japan)를 통해 연구자와 관찰자와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자와 관찰자와의 일치도는 88%이었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관찰자간의 평점의 차이가 1점이 발생한 경우, 관찰자의 평점모서 ± 0.5 점으로 평정하여 일치율을 보았다.

3. 연구도구 :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척도(Mother-Infant Interaction Scale, MIPIS)는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강한 모와 생후 4~6주된 영아의 유희적 상호작용을 비디오 테이프 혹은 직접 관찰한 것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평점 척도이다. 이 척도 점근법은 보통 5분간의 구조화되지 않은 유희적 상호 작용에서 모와 영아가 함께 나타내는 반응의 상호관계 혹은 상호교환을 측정하기 위해 Stern의 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텍사스대학교 간호대학의 Earl Thompson, Jody Bairds, Sara Goodman 및 Susan Bryant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일반적 양식은 Gail Price의 모·아 적응척도(Maternal-Infant Adaptation Scale)를 주로 참작하였다. 관찰시에는 2명의 연구자를 활용할것과 직접 관찰을 위해서는 보통 10~15분간의 관찰을 필요로

한다.

또한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적도는 합계를 내는 평점 척도라는 점에서 흔히 일정한 신생아 행동의 빈도(예: 또렷또렷함, 미소, 웅얼거림, 시각적 상호작용 등)를 관찰하는 다른 방법과는 다르며, 이밖에도 모, 영아 및 모·아의 동시적 상호작용 항목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하위척도를 제공해 준다.

1) 모의 상호작용행동패턴은 문항 1~4, 7, 9~13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항목들에는 어머니의 애정적표현, 시각적 작용, 발성, 영아를 안는 유형, 놀이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등을 포함한다.

2)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패턴은 문항 5,6 및 8(총 3개 항목)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항목들에는 영아의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수준, 감정 혹은 경서, 그리고 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3) 그리고 항목 14~16(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양자간의 동시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에는 상호작용의 양자간의 질, 경서의 동시성 및 상호작용의 종결을 포함한다.

4) 분석: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척도의 16개 항목을 각각 평점(1~5점), 합계한후 모, 영아 및 모·아의 동시적 상호작용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계하였다. 따라서 16개 항목 전체의 점수뿐만 아니라 3가지 행동 패턴별 점수를 구하였다. 평점방법으로는 각 항목에 있어 매우 잘한다는 경우 5점, 잘하는 편이다의 경우 4점, 보통이다의 경우 3점, 잘못하는 편이다의 경우 2점, 매우 잘못한다는 경우 1점으로 하였으며 평점의 합이 3점이상으로 많을수록 모·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준다.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모·아의 일반적 특성과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 패턴은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모, 영아 양자간의 동시적 및 상호적 상호작용과 문항별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패턴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t 검증과 F 검증 그리고 연구도구의 내적 일관성검증을 위해서는 Chronbach Alpha를 사용하였다.

III. 이론적 배경

모든 부모는 그들의 아동을 위해 가능한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원한다. 가장 좋은 환경이란 다만 아동이 부닥치는 자극 혹은 반응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 적절한 자극 혹은 반응을 제공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서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영아에게 무조건 폭넓은 자극을 제공하기 보다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영아를 돌봄으로 그에게 보람된 반응을 유발하고 동시에 부모로서의 성장 혹은 자기실현을 촉진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 생물학적 취약성, 기질적차이, 에너지조정 및 동원능력의 차이,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상태등 돌봄을 받는 영아의 개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행동(Mothering behavior)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행동은 성인이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미숙한 영아의 양육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인지적 및 근육운동기술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인지적 및 정서적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영아의 직접적인 행복과 미래의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부모의 양육행위에는 첫째로 컷먹이기, 안아주기 옷 입히기, 유아주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은 아동을 돌보는 과업중심적 활동(task-oriented activity)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업중심적 활동은 아동이 출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 경험에 의해 획득되어진다. 또한 부모의 인지적 및 정서적 구성요소는 유연함, 아동의 욕구와 희망을 인지하고 관심을 베푸는 자세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아동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육아실천의 실제적인 측면과 함께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행동은 직관적인 여성의 기능이 아닌 학습되어지는 복잡한 사회·인지적 과정이다. 대부분의 부인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만 소수에 있어서는 역할획득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예상적(anticipatory), 공식적(formal), 비공식적(informal) 및 개인적(personal)인 4단계로 통해 획득되어 진다.

예상적 단계는 개인이 기대된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역할에 대한 사회·심리적 적응을 시작해야할 의무가 주어지기 이전의 시기를 의미한다. 공식적 단계는 개인의 사회적 체계내에서 다른 사람의 승인된 기대에 의해 역할행동이 크게 지시되는 실제로 의무가 주어짐과 더불어 시작되는 시기이다. 비공식적단계는 개인의 사

회적 체계에 의해 전달되어 지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발달시킴과 더불어 시작되는 시기이다. 개인적 단계는 역할수행에 개인적 스타일을 부과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수락하는 시기이다. Walker와 Crain 및 Thompson(1986)은 예상적 사회화는 부인이 역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시작함에 따라 임신중에 시작된다고 서술하였다. 부인은 역할을 활성화하고 자궁내 태아와 관련지으며, 또 다소의 역할시범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영아의 출생과 함께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 파트너를 확인하고, 또한 돌봄의 과업을 담당함에 따라 공식적 단계로 이동한다. 비공식적 단계중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규칙과 지시에 엄격히 집착하는데서 점차 자기 자신의 역할행동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응한다. 개인적 단계는 어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조화와 자신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획득의 마지막 단계이다.

2. 영아의 행동조직

오늘날 신생아는 무력한 상태만이 아닌 세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한 신생아를 위한 양육 방법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신생아는 그를 돌봐주는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그자신 아직 부족한 조직통제를 유도해 낼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Brazelton, 1985). 그는 자신의 조직통제를 증진하고, 또 양육자에게 피이트 백할수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에게 적합한 돌보는 행동을 증진한다. 신생아의 행동은 의사소통의 간결한 방식이다. 그리하여 민감한 성인은 그러한 의사소통에 반응하며, 또한 신생아의 기능과 적응과정을 조절하는 행동지표로서의 영아 행동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인식하여 좀더 정확하게 영아의 암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만삭 영아의 첫번째 발달과업은 체온조절, 소화기능 및심장기능의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자율적 기능을 조절하는데 있다. 그러나 만일 영아의 상태조직(state organization)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각, 시각, 촉각등 외부적 자극의 진전은 오히려 그러한 기초적 자율적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 그다음 단계는 영아의 안정된 상태조직을 이루는데 있다. 각성상태의 분화(state differentiation)는 영아의 자율적 기능, 근육운동 조절 및 상태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영아는 상태분화를 특수화하고, 또 조절된 통제를

유지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영아는 기초적이고 자율적인 체계에 장애를 덜 일으키고 비생물적 자극 혹은 사회적 자극과 더불어 세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아는 내적조절 혹은 조화와 사물에 대한 균형된 관심(0~3개월, homeostasis)으로부터 생물적 세계에의 깊고 풍부한 여러가지 감각, 정서적 애착(2~7개월, attachment, 1차적 양육자(어머니)와 더불어), 융통성 있고 광범위한 여러가지 감정적 체계와의 우연적 혹은 상호적 상호작용(3~10개월, 1차적 양육자(어머니)와 더불어 신체, 심리적분화), 복합적이고 조직화된, 그리고 통합된 행동적, 정서적 패턴(9~24개월, 행동조직, 술선수법, 내재화)의 방향으로 발달적 구조를 이룬다(Brazelton 1982, Greenspan, 1984).

3. 유희적 상호작용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고 사랑하며, 또한 아동이 부모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애착과정(attachment process)의 근거를 설명하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사회화의 욕구 및 생존을 위한 신체적 욕구와 관련된 영아의 내적욕구를 어머니가 충족시키는 모·아간의 결속(bond)의 발달을 주장한다. 한편 사회적 학습이론은 어머니에 의해 영아의 불쾌감이 감소되거나 제거되는 대신 쾌감을 느끼게 되면 어머니는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또한 영아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영아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착의 재강화의 원리를 제시한다. 또한 Jenson과 Bobak은 모성의 행동과 특성에 상응하는 영아의 접촉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행동의 페파토리를 제시, 상호성을 포함하는 애착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애착과정은 임신중에 시작되어 산육기초기동안에 강화되며 일단 설정되면 지속되고 일관성 있는 종적인 것으로 영아의 생애를 통해 정신, 신체적 건강에 매우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애착은 매력, 반응성, 그리고 만족에 의해 예측되는 느낌의 상호적 교환으로써 상황변화에 따라 그강도가 변화한다. 또한, 접근(proximity)과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 유지 또는 감소된다. 따라서 애착은 상호적 만족을 통하여 상대방을 수용하는 실제적 혹은 지각된 사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반응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반환작용에 의해 설정되어진다.

1) 정서적 조절단위로서의 모·아의 상호작용: 모·

아의 상호작용은 정서적조절단위(affective regulatory unit)로서 개념화 할 수 있다. 즉, 영아의 암시나 신호에 의해 어머니가 반응하고, 또 어머니에게 영아가 반응하기 때문에 양자는 하나의 조절단위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모·아의 공동조절은 양자가 같은 방향으로 행동을 함께 하려할 때 그 조직이 더 강화되고, 또한 감정적 경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모·아의 상호작용에 있어 리듬, 행동적 레파토리, 반응성 혹은 반응스타일등 3가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은 이러한 개별적 교류방식에 의해 설정되어진다. 리듬의 조절, 행동적 레파토리의 변화 및 상호적 반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리듬: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모·아는 상호작용을 해야하며, 또한 영아는 정신이 맑은 상태이어야 한다. 이러한(예: 눈뜨기, 주의집중, 눈과 눈의 접촉, 눈으로 따라오기, 하품, 발성, 재채기 등) 상태는 흔히 수유, 안면 대 안면의 접촉 혹은 유희활동을 할때하는 동안 빈번히 일어난다. 어머니는 영아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를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머니는 이러한 역할을 학습해야 하며, 또한 본만에 따른 신체적 회복에 영아의 욕구(예: 기아, 갈증, 보은, 접촉에 의한 안정감 등)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감성을 발달시키므로 그들과 영아와의 정서적 결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행동적 레파토리: 울음울기, 미소짓기, 응알거림, 발성등 영아행동의 레파토리적 신호의 측면(signal aspect)과 매달려 밀착하기, 접근하기, 따라오기등 영아행동의 실제적 측면(executive aspect)은 돌봄의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근접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킨다. 신생아의 상태는 깊은 수면, 가벼운 수면, 몽롱함, 각성상태, 활동적 각성상태, 울음을 우는 상태등 6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아는 그가 그의 상태를 조절할 수 없을 때에는 울고 보채고 꿈틀 거리는등 신호를 보낸다. 어머니 혹은 양육자는 영아를 돌봐주려 접근하고 안아 주고 쓰다듬고 흔들어주고 그리고 보다 유연한 상태조절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강화해 준다. 일단 조절이 이루어지고 영아가 각성상태로 되면 그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신호해 준다. 예를 들어 눈뜨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주의집중 하기, 눈과 눈의 접촉, 눈으로 따라오기, 하품하기, 발성, 재채기 등은 어머니의 말하기, 입맞추기, 머리끄덕이기,

미소짓기 등과 같은 반응을 유발한다.

어머니 레파토리: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영아를 단져 보고 영아의 행동을 주목한다. 또한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말의 속도, 음성의 강도 및 리듬을 늦추며 영아로 하여금 말을 듣도록 주의를 집중시킨다. 또한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며 얼굴표정을 과장하고 영아의 행동을 흉내낸다. 또한 영아를 보살펴주려 접근하고 안아 주고, 쓰다듬고, 흔들어주고 그리고 보다 부드러운 상태조절을 위해 잘 달래준다.

(3) 반응성(responsiveness): 반응성이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반응 또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반응성은 적극적인 반환기제로 작용한다. 어머니는 영아의 미소짓기, 응알거림 그리고 응시하고 보는 눈의 시각적 작용을 의도적 반응으로 인지하고 부드러운 접촉, 유희적인 움직임, 온화한 음성등으로 영아의 반응이 그러한 상태로 지속되는 동안 같은 놀이를 계속한다(Lewis, Rosenblum, 1974, Tronick, 1977, Belsky, 1982).

(4) 유희: 유희 또는 놀이는 호기심을 돋우는, 어디에나 있을수 있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유희에는 사물의 특성을 조작을 통해 탐지하는 탐색적 유희와 감각운동의 실행을 포함하는 기능적 유희가 있다. 또한 유희에는 사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생물적)과 사물을 포함(비생물적)하는 사물중심(object-oriented play)의 유희가 있다. 이밖에도 유희활동은 비구조화된 자유로운 놀이와 부모나 혹은 교사와 같은 다른 사람의 조절을 받는 구조화된 놀이,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단독의 혹은 사회적 놀이등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여러가지 형태의 유희는 어떤 단순한 행동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으며 다만 유희적 행동에 따른 공통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희적 행동의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유희적 행동은 외적요구나 재강화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난다.
- 유희는 활동의 성과나 결과보다는 놀이자체에 쫓점을 둔다.
- 사물중심의 놀이는 단순한 탐색적 활동뿐만아니라 사물과 함께 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유희는 사물과 사건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유희에는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자유놀이(예: 가장놀이)가 있다.
- 유희중 아동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관여한다.

○유희에는 해 정서적요소(예 : 만족, 웃음, 기쁨)가 포함된다.

문화와 가족은 유희내용과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희의 중요 매체인 장난감과 과학기술의 변화및 교육은 아동의 유희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희는 영아를 위한 환경과 함께 하는 특별한 상호작용으로 세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며, 또한 그들의 지식을 표현하고, 경험의 표현을 연출하며, 심리적 발전을 포명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신생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흡철, 깜짝놀라는 반응등과 같은 반사적 행동으로 환경에 대처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주로 인간과 사물과의 유희적 관여를 통해 그들은 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초기의 이러한 관여는 주로 시각적인 것이나 약 5개월경에는 크게 감각운동의 경험의 범위를 증가하는 조작적 탐색이 시각적 탐색과 함께 혼합되기 시작한다. 그후 1년달까지 가장 놀이(pretend play)가 시각적 탐색과 조작적 탐색에 추가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3가지 유형의 놀이를 변의 상 각각 별도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유희 중 일반적으로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각적 탐색 : 영아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환경에 시각적으로 반응한다. 신생아는 대부분 움직이는 물체와 빛이 어긋나가는 것과 같은 변화의 빠른 속도를 보이는 자극에 시각적으로 대항한다. 영아의 시각적 관심은 응시 및 추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약 2개월에 현저히 증가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영아로 하여금 어떤 패턴의 복잡성 혹은 검색할과 같은 시각적 사건의 보다 세밀한 측면을 인지하도록 한다. 더 큰 영아는 그들의 시각적 특성에 따라 시각적 사건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 반응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사진은 4개월된 영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더 많은 시각적 경험과 더불어 영아는 다양한 기본적 윤곽 혹은 개념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조작적 탐색 : 사물과의 물리적 접촉은 영아로 하여금 시각적 조사만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정보 즉 무게, 응통성, 체온 및 물체의 다른 속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아는 물건을 취급할때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입력을 경험한다. 그들은 물체가 움직이고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해 위치가 변

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적, 조작적 탐색의 혼합은 세계에 대한 영아의 발달하는 개념에 상상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출생후 몇개월 동안 조작적 탐색은 매우 제한된다. 즉, 영아는 그들의 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손과 눈의 협동을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손을 빼어 물건을 잡거나 되찾을 수 없다. 그러나 5개월부터 시각적으로 주도된 조작적 활동이 발달하고 이와 더불어 조작적 탐색의 범위는 신속히 확대된다.

○가장놀이 : 가장 빠른 형태의 가장놀이는 약 1세경에 나타나는데 이시기의 영아는 먹고, 목욕하고, 수면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흉내낸다. 그후 몇년간 이러한 초기의 가장놀이는 세련된 방향으로 발달, 확대된다.

한편, 영아가 그들의 부모나 양육자와 함께 놀 때에는 신뢰감의 여부가 크게 관련된다. 성인은 영아를 들어올리고 이상한 얼굴표정을 지으며 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함께 지르며, 영아와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함께 놀다. 이러한 행동은 영아에게 즐거운 놀이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뢰하는 부모나 양육자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아는 부모에게 손을 흔들거나 내밀어 인사하며, 또한 눈썹을 움직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들의 표정을 부드럽게 하며 비소짓기, 웅얼거림, 발성등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활동이 낯선 사람에 의해 행해지면, 영아는 매우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러한 유형의 놀이는 영아에게 강한 공포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성인과 영아사이의 신뢰는 안전하게 서로 포옹하는 새로운 계기를 갖게되며 부모와 영아사이의 결속을 재강화하게 됨으로써 부모의 신뢰적인 세계속에 아동의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유희시기 : 어머니의 하루일과는 매우 많다. 젓먹이기, 기저귀갈기, 잠재우기 등 꼭해야할 일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영아와 함께 논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놀이시기는 하루의 일과중 어떤 특정한 시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다른 활동중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놀이시기를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시행하는가 하면 다른 어머니의 경우는 영아가 젓먹기 몇분전에 아니면 젓먹기가 끝날무렵 혹은 젓을 먹인 후 수면전에 영아와 놀이를 시작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저귀 교환 혹은 목욕중에 병행하기도 한다(Stern 1977, Brown 1985).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척도는 새로운 도구이고 아직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 및 논의를 하는데 있어 연구문헌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하기 보다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조사대상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초산모의 연령분포를 보면 24세에서 33세까지였는데 이중 24세~29세가 20명(71.4%)으로 대다수를 점하였고, 그다음으로 30세~33세가 8명(28.6%)으로 적었다. 또한 조사대상 초산모(28명)의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에서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있었는데 이중 대졸이상(대졸 14명, 50% 이상; 대학원 이상 2명, 7.1%)이 57.1%로 반수 이상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고졸(10명 35.8%), 중졸(2명 7.1%)의 순으로 적었다.

한편 조사대상 초산모 28명 전원이 임신을 희망하였으며, 또한 상호작용시 유희도구를 사용한 경우(16명 57.1%)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12명, 42.9%)보다 약간 더 많았다(표 1).

○영아의 일반적 특성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의 재태기간은 38주 이상 42주까지 있었는데, 이중 대부분(21명, 75%)이 38주~40주였고 41주~42주는 7명(25%)으로 소수였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는 다수(19명, 67.9%)가 5~6주였고, 4~5주(9명 32.1%)는 소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12명, 42.9%)에 비해 여아(16명, 57.1%)가 더 많았다. 또한 출생시 체중을 보면 2.6Kg에서 4.0kg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3.2kg~3.4kg이 가장 많았고(12명, 42.9%) 그다음으로 2.9kg~3.1kg(7명, 25.0%), 2.6kg~2.8kg(4명, 10.7%), 3.8kg~4.0kg(3명, 7.1%), 3.5kg~3.7kg(2명, 4.3%)의 순으로 적었다. 한편, 영아중 반수가 인공영양(14명, 50.0%)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혼합영양(9명, 32.1%), 모유영양(5명, 17.9%)의 순이었다.

2. 모가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모의 행동패턴)

○모의 상호작용 점수 : 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표 1〉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연 령	24세~29세	20	71.4
	30세~33세	8	28.6
교육정도	대학원 이상	2	7.1
	대 졸	14	50.0
	고 졸	10	35.8
	중 졸	2	7.1
임신의희망여부	희망함	28	100.0
	희망하지않음	—	—
유희도구의 사용여부	사용함	16	57.1
	사용하지않음	12	42.9

〈표 2〉 영아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재태기간	38~40주	21	75
	41~42주	7	25
연 령	4~5주	9	32.1
	5~6주	19	67.9
성 별	남 아	12	42.9
	여 아	16	57.1
체 중	3.8~4.0kg	3	7.1
	3.5~3.7kg	2	4.3
	3.2~3.4kg	12	42.9
	2.9~3.1kg	7	25.0
	2.6~2.8kg	4	10.7
영 양 별	모유영양	5	17.9
	인공영양	14	50.0
	혼합영양	9	32.1

〈표 3〉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모의 행동패턴	34.05	9.58
영아의 행동패턴	10.84	2.49
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	8.89	3.77
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	53.79	15.00

의도적 애정표현, 비의도적 애정표현—뒷수, 영아를 돌보는 유형, 시각적 상호작용, 생물, 비생물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 발생유형—어조와 내용, 발생유형—뒷수,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는 노력, 상호작용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등 10개문항에 걸친 모의 상호작용 행동패턴의 점수분포를 보면 10~50점중 최저 16점, 최고 50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22점이 3명(10.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7점과 36점 그리고 42점이 각각 2명, 16점과 18점, 26점, 29점, 29.5점, 30점, 31점, 33점, 34점, 35점, 39.5점, 40점, 41점, 44점, 45점, 46.5점, 47점, 48점 및 50점이 각각 1명으로 평균 점수는 34.05(표준편차 9.58)이었다. 한편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이상(14명, 50%)과 평균점수 이하(14명, 50%)에 차이없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 모가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희적 행동패턴은 보통 수준이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Walker의 37.5(7.9)에 비해 다소 낮았다(Walker, 1982).

이상의 결과를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면(문항 1), '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에 있어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21(표준편차 1.08) 이하(15명 53.6%; 평균점수 이상, 13명 46.4%)에서 더 높아 보통이하의 수준이었다(표 4).

그런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꼭 안아주는 주기를 달리하여 영아가 자발적인 자율활동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 경우'로 계속 영아를 가만히 받쳐 주거나 주기적으로 안아주며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데 따라 안는 자세를 바꾸어 자율활동을 할 수 있게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보다는 영아의 자발적인 자율활동을 견제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영아를 안아주지 않거나 어머니와 영아사이에 거리를 둔 경우는 1에도 없었다.

(문항 2) '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3.80(표준편차 0.88) 이상(16명 57.2%; 평균점수 이하, 14명 42.8%)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내용은 '평범하거나 상냥한 표현'으로 어머니가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냉담하게 영아에게 얼굴을 찌푸리기 보다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고 기쁨과 애정을 표현하며 영아의 행동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고 미소를 짓는 상냥한 표현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가 긴장하거나 근심스럽고 짜증을 내는 경우는 1에도 없었다.

(문항 3) '어머니의 비의도적 애정표현 뒷수'에 있

어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46(표준편차 1.23) 이상(16명 57.1%; 평균점수 이하, 12명 42.9%)에서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내용을 보면 '영아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가끔 웃어주는 경우'로 영아의 행동에 대해 웃어주지 않거나, 또는 영아의 행동과 무관하게 웃어주기보다는 가끔(1~2회) 웃어주거나 자주(3회 혹은 그이상) 웃어주는 현상을 보였다.

(문항 4)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39(표준편차 1.01) 이상(15명 53.6%; 평균점수 이하, 13명 46.4%)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내용은 '조직적인 보살핌과 부드러운 보살핌의 교대로 영아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되는 기회를 갖거나 추적하는 경우'로 어색하고 조직적인 보살핌으로 영아가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보살핌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거나 추적하며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또한 영아의 몸을 갑작스럽게 다루거나 거친 보살핌, 덜컹움직이는 자세 혹은 영아가 불안한 울음으로 반응한 경우는 1에도 없었다.

(문항 7) '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는 평균 점수 3.55(표준편차 1.10) 이상(18명 68.3%; 평균점수 이하, 10명 31.7%)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영아를 바라보고 오랜 동안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지며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해 다가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경우'로 영아가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게 어머니가 피하거나 영아의 위치를 옮기며 잠간동안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갖기 보다는 오랜동안(10초 이상)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갖거나 얼굴을 마주 대하기 위해 다가가거나 물러서며, 또한 음성울 내거나 얼굴표정을 짓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의 시각 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는 1에도 없었다.

(문항 9) '생물, 비생물과의 유희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의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 점수 3.12점(표준편차 1.16)이하(16명 57.1%; 평균이상, 12명 42.9%)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 보통이하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최소로 사용하고 주로 비생물체(장난감)를 사용하여 가끔 음성을 내는 경우'로 어머니가 얼굴표정

과 음성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과 유희도구를 같이 사용하거나 뽀뽀, 피부접촉, 얼굴표정 등 자기 자신을 이용하고 음성을 내며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감을 사용하기 보다는 음성이나 얼굴표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로 비생물체를 사용하고 가끔 음성만을 곁들이는 편이었다.

(문항 10) '어머니의 발성유형'에 있어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91(표준편차 1.13) 이상(17명 60.7%; 평균점수 이하, 11명 39.3%)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애정적인 어조와 내용으로 말하거나 애정이 깃든 방식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로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발성하지 않거나 혹은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중립적인 어조로 말하기보다는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애정적인 어조로 혹은 애정적인 어조와 내용으로 또는 애정이 깃든 방식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편이었다.

(문항 11) '어머니의 발성횟수'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3.41(표준편차 1.01) 이상(15명 53.6%; 평균점수 이하, 13명 46.4%)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여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영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2번이상 음성을 내거나 흉내내는 경우'로 영아에게 발성하지 않거나 영아의 행동에 반응하며 1~2번, 또는 2번 이상 자주 음성을 내고 영아와 함께 발성을 흉내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영아에게 자주 음성을 내거나 영아의 행동과 무관한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1예도 없었다.

(문항 12)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에 있어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00(표준편차 1.13) 이상(16명 57.1%; 평균점수 이하, 12명 42.9%)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여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기 위해 아무 부분이나 만져주고 음성을 내거나 얼굴표정을 짓는 경우로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아무 부분이나 만져주고 음성을 내거나 얼굴표정을 짓는, 또는 음성화 얼굴표정이 혼합된 특정한 자극, 예를 들어 신체부분을 만지거나 어루만지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문항 13) '상호작용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3.17(표준편차 0.94)이하(16명 57.1%; 평균 점수 이상, 12명 42.9%)

에서 높은 빈도를 보임으로써 보통이하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영아를 자극하는데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흔들어주기, 잡아늘이기, 운동시키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영아가 지나치게 자극되거나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번갈아가면서 자극을 주기보다는 영아를 자극하는데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흔들어주기, 잡아늘이기, 운동시키기 등 1~3가지를 이용하는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사대상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희적 행동은 애정적표현, 영아를 돌보는 유형, 시각적 상호작용, 발성유형,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는 노력 등 경서적 반응은 잘하는 편이었으나 영아를 안는 유형, 생물, 비생물과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 등 실제적 과업중심 활동의 반응은 같못하는 편이었다. 즉, 영아를 안아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나 영아의 자발적인 자율활동을 억제하거나 입맞춤, 피부접촉, 발성, 얼굴표정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장난감을 사용하고 가끔 음성만을 곁들이는 행동유형을 보였으며, 영아가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번갈아가면서 필요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흔들어주기, 잡아늘이기, 운동시키기 등 1~3가지 혹은 그이상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를 모로 꼭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아방식과 조사대상 어머니가 초산모임을 감안할 때 신생아를 안는 방법에 대한 훈련부족, 그리고 신생아는 반사적 행동으로 환경에 대처할뿐 주위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손과 눈의 협동이 부족하며 손을 뻗어 물건을 잡거나 되찾을 수 없으며 시각적 관심은 응시 및 추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되는 등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사려된다(Brown, 1982; 유, 1986).

3. 영아가 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영아의 행동패턴)

영아의 상호작용 점수: 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수준, 주요감정 혹은 경서, 시각적 상호작용 등 3개 항목으로 된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패턴의 점수분포를 보면 3~15점 중, 최저 6.5점에서 최고 14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중 8점과 11.5점, 12.5점, 13점 및 14점이 각각 3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점과 9점, 12점, 13.5점이 각각 2명, 6.5점, 7.5점, 8.5점, 10점 및 11점이 각각 1명으로 평균점수는

10.84(표준편차 2.48)이었다. 한편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이상(17명 60.7% ; 평균점수 이하, 11명 39.3%)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패턴은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Walker의 10.2(2.5)보다 다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면(문항 5), ‘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수준’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98(표준편차 0.75) 이상(19명 67.8% ; 평균점수 이하, 9명 32.1%)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생물 혹은 비생물체에 시각적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있거나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위를 살피는 경우로 영아가 즐거나 잠을 자기 보다는 어머니나 장난감에 시각적 관심을 가지며 깨어있거나 적극적으로 어머니와 장난감을 찾아 주위를 살피는 편이었다. 또한 꾸벅꾸벅 졸거나 눈이 완전히 감겼거나 반쯤 감겨 깨어날 수 없을듯이 보이며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3초 미만)을 제외하고는 그저 허공을 쳐다보는 경우는 1예도 없었다.

(문항 6) ‘영아의 주요감정 혹은 정서’에 대한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58(표준편차 1.04) 이상(17명 60.7% ; 평균점수 이하, 11명 29.3%)에서 더 높아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영아가 편안해 보이고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거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는 경우’로 어머니의 행동에 무관심하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느정도 고통스러워 보이고, 공연히 투정을 부리거나 얼굴을 돌리며 계속 울기보다는 어머니가 시도하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거나 편안한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즐거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문항 8) ‘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3.26(표준편차 0.97) 이하(15명 53.6% ; 평균점수 이상, 13명 46.4%)에서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의 시각한계내에 있을때 시각적 교환(10초 이상)을 하려하는 경우’로 영아가 주위를 살피거나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기보다는 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의 시각한계내에 있는 동안, 5~10초간의 시각적 교환을 하거나 혹은 어머니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재빨리 얼굴을 피하거나 자세를 바꾸어서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

는 편이었다. 그러나 영아가 어머니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는 1예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 영아의 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은 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수준과 영아의 주요감정 혹은 정서 등 상태 조절과 조직통제는 잘하는 편이었으나 어머니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얼굴을 피하거나 자세를 바꾸어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는등 시각적 상호작용은 잘못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의 경우 변화의 빠른 속도, 예를들어 물체나 빛의 어른거리는 것과 같은 자극에 대해 시각적으로 매혹되기는 하지만 응시 및 추적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려된다.

4. 모·아가 동시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정서의 동시성, 상호작용의 종결 등 3개 항목에 걸친 모·아의 동시적 상호작용행동패턴의 점수분포는 3~15점중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그중 3점과 12점이 각각 3명(2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점, 9점, 10.5점, 11.5점, 13점 및 15점이 각각 2명 3.5점, 4점, 4.5점, 5점, 6점 6.5점, 7.5점, 9.5점 11점, 12.5점이 각각 1명의 순으로 평균 점수는 8.89(표준편차 3.76)이었다. 한편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이상(16명 57.0% ; 평균점수 이하, 12명 43.0%)에서 약간 더 높아 모·아가 동시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효적 행동패턴은 보통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Walker의 5.5(2.7)의 경우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면(문항 14)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에 있어서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2.69(표준편차 1.38) 이하(15명 53.6% ; 평균점수 이상, 13명 46.4%)에서 더 높은 분포를 보여 보통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거나, 어머니나 영아 둘중 한쪽으로부터 시작되나 상태로부터 반응이 없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약간의 작용이 있은후(1분간) 나타나거나 혹은 영아의 기분에 따라 지체없이 자극을 주기보다는 상호작용의 시작과 그에 따른 상태의 반응이 약간(1~2번) 지연되거나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모·아 둘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시작되나 상태

로부터 반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문항 15) '정서의 동시성'에 있어서의 점수분포를 보면 평균점수 3.10(표준편차 1.24)이상 (15명 53.6% ; 평균점수 이하, 13명 46.4%)에서 더 높아 보통수준 이상이였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모·아가 즐거운 교류를 하나 약간 지연되거나 상대에게 말, 몸짓, 흥분된 감정 나누기 등으로 적절히 반응하는 경우'로 모, 영아중 한쪽이 즐거운 교류를 하지 않거나 영아가 불안해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근심스럽거나 따분해 보이기 보다는 모·아의 즐거운 교류가 약간 지연되거나 거의 동시적으로 즐거운 교류를 갖는 편이였다.

(문항 16) '상호작용의 종결'에 있어 점수분포는 평균점수 3.08(표준편차 1.31)이상(20명 71.4 ; 평균이상 8명 28.6%)에서 더 높아 평균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영아의 무언의 짜증(몸구부리기, 얼굴돌리기등)에 대한 반응으로 멈추거나 혹은 약간 늦게 종결하는 경우'로 약간의 울음이나 불안함(5~10초간의 보챌)에 대한 반응이나 영아의 참여를 무시한채 어머니 의사대로 상호작용을 멈추기 보다는 영아의 무언의 짜증, 어머니가 지나치게 영아를 자극하고 있다거나 혹은 중지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영아의 섬세한 암시에 상호작용을 멈추는 편이였다. 또한 영아가 불안상태에 도달할때까지 둔 다음(15~30초) 상호작용을 멈춘 경우는 1예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아가 동시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은 정서의 동시성, 상호작용의 종결등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같은 방향으로의 공동조절은 잘하는 편이었으나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거나 도와 영아중 한쪽으로부터 시작되더라도 상대로부터 반응이 없는등 동시적 반응은 잘못하는 편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의 각성상태, 그러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려는 모의노력, 모의 테파토리릿 반응성에 있어 모·아의 동시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기 인된다고 사려된다(Lester, Brazeton 1973).

5. 모·아가 상호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

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 어머니의 비의도적 애정표현 횟수,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 영아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반응

의 주요단계, 영아의 주요감정 혹은 정서, 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 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 생물, 비생물과의 놀이놀 통한 상호작용 유형, 어머니의 발성 유형 - 어조와 유형, 어머니의 발성횟수,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 하려는 어머니의 노력, 상호작용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정서의 동시성, 상호작용의 종결 등 총 16개 문항의 분포를 보면 28~140점중 최저 27점, 최고 79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그중 35점과 39점, 44점, 46점, 65점, 70점이 각각 2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7점과 33점, 37점, 45점, 50점, 52점, 57점, 57.5점, 58점, 64점, 73점, 74점 77점 및 79점이 각각 1명으로 평균점수는 53.78(표준편차 14.99)로 평균점수 이하(14명, 50.0%)와 평균점수 이상(14명 50.0%)에 차이없이 비슷한 점수분포를 나타내는 보통수준의 유희적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Walker의 53.3(10.7)의 경우와 유사하였다(표 4).

이상의 결과를 문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1) '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의 점수분포는 1~5점중 2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2점(꼭 안아주는 주기를 달리하여 영아가 자발적인 자율활동을 하는 것을 견제한다)과 2.5점이 각각 7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점(주기적으로 안아줌으로써 영아가 자율활동을 할 수 있게 하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지는 않는다)이 5명, 4.5점과 5점(친밀한 신체접촉과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안는 자세를 바꾸어 상호작용을 촉진한다)이 각각 3명, 3.5점이 2명, 3점(계속 가만히 받쳐줌으로써 자율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끔 자세를 바꾼다)이 1명으로 평균점수는 3.21(표준편차 1.08)로 평균점수 이하(15명 53.6% ; 평균이상 14명 46.4%)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영아를 안아주지 않거나 어머니와 영아사이에 거리를 둔 경우는 1예도 없었다.

(문항 2) '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의 점수분포에 있어서도 2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3점(평범하거나 상냥한 표현)이 7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점(세심하며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고 영아에게 미소를 별케도 있다)이 6명, 4.5점과 5점(기쁨과 애정을 표현하고 영아의 행동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고 영아에게 미소를 짓는다)이 각각 5명, 3.5점과 2.5점이 각각 2명, 2점(다른일에 몰두하면서 빙땀하며 영아에게 얼굴을 찌푸린다)이 1명

〈표 4〉 유희를 통한 문항별 상호작용 측정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 1(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3.21	1.08
문항 2(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	3.80	0.89
문항 3(어머니의 애정표현 횟수)	3.46	1.24
문항 4(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	3.39	1.01
문항 5(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의 주요단계)	3.98	0.75
문항 6(영아의 주요감정 혹은 정서)	3.59	1.05
문항 7(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	3.55	1.10
문항 8(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	3.27	0.98
문항 9(생물, 비생물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	3.13	1.16
문항10(어머니의 발성유형 - 어조와 내용)	3.91	1.14
문항11(어머니의 발성 유형)	3.41	1.01
문항12(영아에게 웃음을 띠게 하려는 어머니의 노력)	3.00	1.13
문항13(상호작용의 근육운동자극적 특성)	3.18	0.95
문항14(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2.70	1.38
문항15(정서의 동시성)	3.11	1.24
문항16(상호작용의 종결)	3.09	1.31

으로 평균점수는 3.80(표준편차 0.88)로 평균점수 이상(16명 57.2% ; 평균점수 이상, 12명 42.8%)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편 어머니가 긴장하거나 근심스럽고 짜증을 내는 경우(1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3) ‘어머니의 비의도적 애정표현—횟수’에 대한 점수분포를 보면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 중 4점(영아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가깝웃어준다(1~2번))이 7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점(영아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웃어준다)과 5점(영아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자주 웃어준다(3번 혹은 그이상))이 각각 6명, 3.5점과 1.5점 및 1점(영아의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게 웃어준다)이 각각 2명, 4.5점과 2.5점 그리고 2점(영아에게 웃어주지 않는다)이 각각 1명으로 평균점수는 3.46(표준편차 1.23)이었고 평균점수 이상(16명 57.1% ; 평균점수 이하, 12명 42.9%)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문항 4)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에 대한 점수분포는 2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그 중 2점(어색하고 조직적인 보살핌으로 영아는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이 5명(17.9%), 5점(일관된 온화한 보살핌으로 영아의 몸을 부드럽게 다루며 영아는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이 3명, 2.5점과 3점(조직적인 보살핌과 부드러운 보살핌의 교대로 영아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되는 기회를 갖는다), 3.5점, 4점, (매우 온화한 보살핌으로 영아의 몸을 부드럽게 다루고 영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되고 추적한다) 및 4.5점이 각각 4명으로 평균점수는 3.39(표준편차 1.01)로 평균점수 이상(15명 53.6% ; 평균점수 이하, 13명 46.4%)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아의 몸을 갑작스럽게 다루는 거친 보살핌이나 덜컥 움직이는 자세 혹은 영아가 불안한 울음으로 반응한 경우(1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5) ‘영아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수준’의 점수분포를 보면 2.5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4.5점(생물체나 비생물체에 시각적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있거나 적극적으로 깨어있어 생물체나 비생물체를 찾아서 주위를 살핀다)이 13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3점(영아가 깨어있고 생물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즐거거나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 5명, 4점(생물체나 비생물체에 시각적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있다)이 4명, 5점(적극적이며 깨어있고 생물체를 찾아 주위를 살핀다)과 3.5점 및 2.5점이 각각 2명등 평균 점수는 3.98(표준편차 0.75)로 평균점수 이상(19명 67.8% ; 평균점수 이하, 9명 32.1%)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아가 깨어날 수 없을듯이 꾸벅꾸벅 졸거나 눈을 뜨기도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는 잠간동안(3초미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저 허공을 쳐다보는 경우(2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6) ‘영아의 주요감정 혹은 정서’의 점수분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그 중 4.5점(영아가 편안해 보이고 어머니가 시도하는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거나 상호작용을 즐겨워한다)이 9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점(영아가 편안해 보이고 어머니가 시도하는 상호관계에 관심을 갖는다)이 7명, 3점(어머니의 행동에 무관심하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과 2.5점, 2점(영아가 어느정도 고통스러

워 보이고 공연히 투정을 부리거나 얼굴을 돌린다)이 각각 3명, 5점(영아는 편안한 상태이고 상호작용을 즐겨워한다)과 3.5점 및 1점(피로워하거나 계속운다)이 각각 1명으로 평균점수는 3.58(표준편차 1.04)이었고 평균점수 이상(17명 60.7% ; 평균점수 이하 11명 39.3%)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 7) '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의 점수분포는 1.5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4점(영아를 바라보고 오랜동안(5~10초)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지며 얼굴을 대하기 위해 다가가거나 뒤로 물러선다)과 4.5점이 각각 5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점(영아를 바라보며 오랜동안(10초 이상)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지며 얼굴을 마주 대하기 위해 다가가거나 물러서며 또한 목소리를 내거나 내고 얼굴표정을 사용한다)과 3.5점이 각각 4명, 3점(영아를 바라보며 잠깐동안(5초—그미반)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진다)과 2점(영아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거나 영아가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게 어머니가 피하거나 영아의 위치를 옮긴다)이 각각 2명의 순위로 평균점수는 3.55(표준편차 1.10)로 평균점수 이상(18명 68.3% ; 평균점수 이하, 1명 35.7%)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가 영아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1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8) '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의 점수분포는 2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그중 4점(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의 시각한계내에 있을때 시각적 교환을 하려한다(10초 이상)이 8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점(영아가 어머니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기도 하나 제발리 얼굴을 피하거나 자세를 바꾸어서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다)이 6명, 3점(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의 시각적 한계내에 있을때 주위살피기, 머리의 자세 얼굴표정을 통해 영아는 시각적 교환을 하려한다, 5~10초)이 5명, 2.5점이 4명, 5점(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는다, 10초나 그이상)과 4.5점이 각각 2명, 3.5점이 1명으로 평균점수는 3.26(표준편차 0.97)이었고 평균점수이하(15명 53.6% ; 평균점수 이상, 13명 46.4%)에서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아가 어머니의 시각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1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9) '생물, 비생물과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의 점수분포를 보면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2점(어머니가 자기자신을 최소로

활용하면서 비생물체를 사용하며 가끔 음성을 사용한다)이 6명(21.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3점(어머니가 때로 얼굴표정과 음성을 사용하면서 상호작용에서 비생물체와 자기자신을 똑같이 사용한다)과 4점(중증 얼굴표정과 음성을 곁들이며 주로 자기자신을 이용하나 비생물체를 사용하기도 한다)이 각각 5명, 5점(어머니는 자극의 주요 원천으로 보면, 피부접촉, 얼굴표정등 자기자신을 이용하며 음성을 사용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생물체를 이용한다)과 2.5점이 각각 3명, 4.5점과 3.5점 및 1점(어머니는 음성이나 얼굴표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비생물체를 사용한다)이 각각 2명의 순으로 평균점수 3.12(표준편차 1.16)로 평균점수 이하(16명 57.1% ; 평균점수이상, 12명 42.9%)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 10) '어머니의 발생유형—어조와 내용'의 점수분포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그중 5점(애정적인 어조와 내용으로 말하거나 애정이 깃든 방식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표현한다)이 10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점(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중립적인 어조로 말한다)이 6명, 4점(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애정적인 어조로 말한다)이 5명, 3.5점이 3명, 4.5점과 1점(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상호작용동안 영아에게 발생하지 않는다)이 각각 2명으로 평균점수는 3.91(표준편차 1.13)이었고 평균점수 이상(17명 60.7% ; 평균점수 이하, 11명 39.3%)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중립적이거나 애정적인 내용을 비판적인 어조로 발한 경우(2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11) '어머니의 발생유형—횟수'의 점수분포를 보면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에었는데, 이중 4점(영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2번이상 음성을 내거나 흉내낸다)이 8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점(영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자주(2번이상) 음성을 내고 영아와 함께 발생을 흉내낸다)과 3.5점, 2.5점 및 1.5점이 각각 2명, 1점(영아에게 음성을 내지않는다)이 1명으로 평균점수는 3.41(표준편차 1.01)로 평균점수 이상(15명 53.6% ; 평균점수 이하, 13명 46.4%)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영아에게 자주 음성을 내고, 영아의 행동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는 경우(2점)는 1예도 없었다.

(문항 12)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 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의 점수분포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4점(영아에게 웃음을 띄게 하

기 위해 아무부분(예 : 배를 문지른다)이나 만져주고 음성을 내거나 얼굴표정을 짓는다)이 7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5점이 5명, 3점(어머니가 아무 부분이나 만져주고 발성하기도 한다)이 4명, 2점(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고 발성한다)과 1점(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이 각각 3명, 4.5점과 3.5점이 각각 2명, 5점(영아에게 웃음을 띄게 하기 위해 음성과<이나> 얼굴표현이 결합된 특정한 전술적인 자극을 이용한다(예 : 볼부분을 만지거나 어루만지거나 가볍게 두드린다)과 1.5점이 각각 1명으로 평균점수는 3.00(표준편차 1.13)이었고 평균점수 이상(16명 57.1% ; 평균점수 이하, 12명 42.9%)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 13) '상호작용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점수분포를 분석해 보면, 4점(영아를 자극하는데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흔들어주기, 잡아늘이기, 운동시키기 등 3가지나 그 이상을 이용한다)과 3점(영아를 자극하는데 위의 것 중 2가지를 이용한다)이 각각 10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점(영아를 자극하는데 위의 것 중의 하나를 이용한다)과 1.5점이 각각 2명, 5점(영아를 자극하는데 위의 것 중 3~4가지를 이용하며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준다)과 3.5점, 2.5점 및 1점(영아의 신체에 자극을 주지 않거나 유해한 자극<꼭꼭찌르기, 세게두드리기, 꼬집기>을 한다)이 각각 1명으로 평균점수는 3.17(표준편차 0.94)로 평균 점수 이하(16명 57.1% ; 평균점수 이상 12명 42.9%)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 14)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의 점수분포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1점(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어머니나 영아 둘중 한쪽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상대로부터 반응이 없다)이 6명(2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점(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기는 하나 약간의 작용이 있은후<1분 이상>에만 나타나고 어머니는 영아의 암시에 대한 반응으로 자극에 변화를 준다)과 2점(상호작용의 시작과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이 자주 지연된다)이 각각 5명, 1.5점과 3.5점이 각각 3명, 5점(상호작용이 시작에서부터 동시적이고 영아의 기분에 따라 지체없이 자극을 준다)과 4.5점이 각각 2명, 3점(상호작용의 시작과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이 약간<1~2분 정도> 지연된다)과 2.5점이 각각 1명의 순으로 평균점수는 2.69(표준편차 1.38)이었고 평균점수

이하(15명 53.6% ; 평균점수 이상, 13명 46.6%)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문항 15) '정서의 동시성'의 점수분포 또한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중 4점(모, 영아가 즐거운 교류를 가지나 약간 지연되고 한쪽이 상대에게 말, 몸짓, 흥분된 감정 나누기 등으로 적절히 반응한다)과 3.5점이 각각 5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점, (모, 영아중 한쪽은 즐거운 교류를 찾으나 상대는 반응하지 않는다)이 4명, 4.5점과 1.5점 및 1점(즐거운 교류가 없고 영아는 불안해하고 어머니는 근심스럽거나 따분해 보인다)이 각각 3명, 5점(모, 영아가 거의 동시적으로 즐거운 교류를 가진다(예 : 불안, 폐쇄)과 2점(모, 영아중 한쪽은 즐거운 교류를 찾으나 상대는 다른 기본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한다)이 각각 2명, 2.5점이 1명등 평균점수는 3.10(표준편차 1.24)으로 평균점수 이상(15명 53.6% ; 평균점수 이하, 13명 46.4%)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문항 16) '상호작용의 증진'에 대한 점수분포를 보면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중 4점(영아의 무언의 짜증<몸구부리기, 얼굴돌리기 등>에 대한 반응으로 멈추거나 약간 늦추었다)이 12명(42.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점(영아의 참여를 무시한채 어머니 의사대로 상호작용을 멈춘다)이 5명, 5점(어머니가 지나치게 영아를 자극하고 있다거나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영아의 섬세한 암시에 상호작용을 멈춘다)이 2명, 1.5점과 2.5점 및 3.5점이 각각 1명등 평균점수는 3.08(표준편차 1.31)로 평균점수 이상(20명 71.4% ; 평균점수 이하, 8명 28.6%)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영아를 불안상태에 도달할때까지 든 다음(15~30초) 상호작용을 멈출 경우(2점)는 1예도 없었다.

6. 모·아의 유형적 상호작용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1) 조사대상 초산모의 교육수준과 문항별 및 모·아의 행동패턴별 차이

문항 1~16, 모의 행동패턴(F 0.6104), 영아의 행동패턴(F 0.7821), 모·아의 동시성(F 0.9929) 및 상호적 행동패턴(F 0.8378)과 조사대상 초산모의 증진,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등의 교육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2) 조사대상 초산모의 우회도구(혹은 장난감)의 사용여부의 문항별 및 모·아의 행동 패턴별 차이

〈표 5〉 교육수준에 따른 문항별 및 모·아의 상호작용 행동패턴별 차이

구	분	sum of squares	mean squares	F ratio	F Prob.
문항 1(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5049	0.2525	0.202	0.8182
문항 2(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4103	0.7051	0.892	0.4224
문항 3(어머니의 애정표현 횟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9643	0.9821	0.622	0.5452
문항 4(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0442	0.0221	0.020	0.9802
문항 5(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의 주요단계)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2786	0.1393	0.233	0.7941
문항 6(영아의 주요 감정 혹은 정서)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3174	0.1587	0.136	0.8736
문항 7(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	중졸, 고졸, 대졸 이상	3.5353	1.7676	1.517	0.2389
문항 8(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7317	0.3658	0.366	0.6974
문항 9(생물, 비생물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7281	1.3641	1.015	0.3767
문항10(어머니의 발성 유형—어조와 내용)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4424	0.7212	0.537	0.5912
문항11(어머니의 발성 유형—횟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3174	0.1587	0.146	0.8650
문항12(영아에게 웃음을 띠게하려는 어머니의 노력)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8125	0.9063	0.693	0.5094
문항13(상호작용의 근육운동 자극적 특성)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2228	1.1114	1.270	0.2984
문항14(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0853	0.5426	0.268	0.7669
문항15(정서의 동시성)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3192	0.1596	0.096	0.9084
문항16(상호작용의 종결)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5174	0.7587	0.421	0.6607

모의 행동패턴(문항 1~4, 7, 9~13) 중졸, 고졸, 대졸 이상	95.9465	47.9732	0.503	0.6104
영아의 행동패턴(문항 5, 6, 8) 중졸, 고졸, 대졸 이상	3.2517	1.6259	0.248	0.7821
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문항 14, 15, 16) 중졸, 고졸, 대졸 이상	0.2191	0.1096	0.007	0.9929
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문항 1~16) 중졸, 고졸, 대졸 이상	85.3324	42.6662	0.178	0.8378

문항 1~16, 모의 행동패턴($T=0.81$), 영아의 행동패턴($T=0.49$), 모·아의 동시적($T=0.25$) 및 상호적 행동패턴($T=0.50$)에 있어 유희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생물)와 유희도구를 사용(비생물)한 유희방법별 평균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 6〉 생물, 비생물 놀이 방법에 따른 문항별 및 모·아의 상호작용 행동패턴별 차이

변수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F value	2-Tail Prob.	Pooled T value	Variance Estimate	탈각도수	Estimate 2-Tail Prob
문항 1(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생물	14	3.4643	1.293						
비생물	14	2.9643	0.796	2.64	0.092	1.23	26		0.229
문항 2(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									
생물	14	3.9643	0.887						
비생물	14	3.6429	0.886	1.00	0.998	0.96	26		0.346
문항 3(어머니의 애정표현 횟수)									
생물	14	3.6786	1.339						
비생물	14	3.2500	1.139	1.38	0.569	0.91	26		0.370
문항 4(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									
생물	14	3.5000	1.193						
비생물	14	3.2857	0.825	2.09	0.198	0.55	26		0.585
문항 5(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의 주요단계)									
생물	14	3.7143	0.802						
비생물	14	4.2500	0.612	1.71	0.343	-1.99	26		0.058
문항 6(영아의 주요 감정 혹은 경서)									
생물	14	3.4643	1.278						
비생물	14	3.7143	0.777	2.70	0.085	-0.63	26		0.537
문항 7(어머니의 시작적 상호작용)									
생물	14	3.7857	1.069						
비생물	14	3.3214	1.120	1.10	0.870	1.12	26		0.272

문항 8(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								
생물	14	3.4286	1.124					
비생물	14	3.1071	0.813	1.91	0.255	0.87	26	0.394
문항 9(생물, 비생물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								
생물	14	3.4286	1.254					
비생물	14	2.8214	1.012	1.54	0.450	1.41	26	0.170
문항10(어머니의 발성유형—어조와 내용)								
생물	14	3.8214	1.154					
비생물	14	4.0000	1.160	1.01	0.984	-0.41	26	0.686
문항11(어머니의 발성 유형—횟수)								
생물	14	3.5000	1.177					
비생물	14	3.3214	0.846	1.93	0.247	0.46	26	0.649
문항12(영아에게 웃음을 띄게 하려는 어머니의 노력)								
생물	14	3.2143	1.251					
비생물	14	2.7857	0.994	1.58	0.418	1.00	26	0.325
문항13(상호작용의 근육운동 자극적 특성)								
생물	14	3.1786	1.049					
비생물	14	3.1786	0.868	1.46	0.505	0.00	26	1.000
문항14(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생물	14	2.8571	1.634					
비생물	14	2.5357	1.117	2.14	0.184	0.61	26	0.549
문항15(경서의 동시성)								
생물	14	3.0714	1.479					
비생물	14	3.1429	1.008	2.15	0.181	-0.15	26	0.882
문항16(상호작용의 종결)								
생물	14	3.1429	1.447					
비생물	14	3.0357	1.216	1.42	0.540	0.21	26	0.834
모의 행동패턴(문항 1~4, 7, 9~13)								
생물	14	35.5357	11.017					
비생물	14	32.5714	8.033	1.88	0.268	0.81	26	0.423
영아의 행동패턴(문항 5, 6, 8)								
생물	14	10.6071	3.008					
비생물	14	11.0714	1.920	2.45	0.118	-0.49	26	0.630
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문항 14, 15, 16)								
생물	14	9.0714	4.467					
비생물	14	8.7143	3.074	2.11	0.191	0.25	26	0.807

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문항 1~16)								
생물	14	55.2143	17.794					
비생물	14	52.3571	12.081	2.17	0.176	0.50	26	0.623

3) 조사대상 영아의 성별과 문항별 및 모·영아행동 동패턴(T=0.06), 모·아의 동시적(T=0.38) 및 상호적 행동패턴(T=0.06)과 남아, 여아간의 평균치간에 문항 1~16, 모의 행동패턴(T=0.26), 영아의 행동패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7> 영아 성별에 따른 문항별 및 모·아의 상호작용 패턴별 차이

변수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F value	2-Tail Prob.	Pooled T value	Variance Estimate	2-Tail Prob
문항 1(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남아	12	3.1667	1.174					
여아	16	3.2500	1.049	1.25	0.670	-0.20	26	0.845
문항 2(어머니의 의도적 애정표현)								
남아	12	3.7083	0.835					
여아	16	3.8750	0.922	1.14	0.487	-0.49	26	0.631
문항 3(어머니의 애정표현 횟수)								
남아	12	3.4583	1.270					
여아	16	3.4688	1.238	1.02	0.951	-0.02	26	0.983
문항 4(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								
남아	12	3.4167	1.041					
여아	16	3.3750	1.025	1.03	0.993	0.11	26	0.917
문항 5(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반응의 주요단계)								
남아	12	3.8750	0.772					
여아	16	4.0625	0.750	1.06	0.895	-0.65	26	0.524
문항 6(영아의 주요 감정 혹은 정서)								
남아	12	3.6250	1.090					
여아	16	3.5625	1.047	1.08	0.865	0.15	26	0.879
문항 7(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								
남아	12	3.4583	0.988					
여아	16	3.6250	1.204	1.49	0.513	-0.39	26	0.699
문항 8(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								
남아	12	3.3750	0.956					
여아	16	3.1875	1.014	1.13	0.860	0.50	26	0.624
문항 9(생물, 비생물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								
남아	12	3.1667	1.231					
여아	16	3.0938	1.143	1.16	0.774	0.16	26	0.873

문10항(어머니의 발생 유형—어조와 내용)									
남아	12	3.8333	1.249						
여아	16	3.9688	1.087	1.32	0.605	-0.31	26	0.762	
문항11(어머니의 발생 유형—횟수)									
남아	12	3.2500	1.138						
여아	16	3.5313	0.921	1.53	0.441	-0.72	26	0.476	
문항12(영아에게 웃음을 피게하려는 어머니의 노력)									
남아	12	2.8333	1.073						
여아	16	3.1250	1.190	1.23	0.741	-0.67	26	0.510	
문항13(상호작용의 근육운동 자극성 특성)									
남아	12	0.2083	0.865						
여아	16	3.1563	1.028	1.41	0.570	0.14	26	0.888	
문항14(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남아	12	2.7083	1.442						
여아	16	2.6875	1.401	1.03	0.936	0.04	26	0.969	
문항15(정서의 동시성)									
남아	12	3.1667	1.135						
여아	16	3.0625	1.352	1.42	0.564	0.22	26	0.831	
문항16(상호작용의 종결)									
남아	12	3.3333	1.135						
여아	16	2.9063	1.440	1.61	0.430	0.85	26	0.404	
모의 행동패턴(문항 1~4, 7, 9~14)									
남아	12	33.5000	9.810						
여아	16	34.4688	9.706	1.02	0.947	-0.26	26	0.797	
영아의 행동패턴(문항 5, 6, 8)									
남아	12	10.8750	2.423						
여아	16	10.8125	2.613	1.16	0.815	0.06	26	0.949	
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문항14, 15, 16)									
남아	12	9.2083	3.513						
여아	16	8.6563	4.044	1.33	0.646	0.38	26	0.709	
모·아의 상호적 행동패턴(문항 1~16)									
남아	12	53.5833	14.985						
여아	16	53.9375	15.492	1.07	0.931	-0.06	26	0.952	

V. 결 론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패턴에 관한 본연구

는 서울시내 3개 종합병원 산과병동 및 3개 조산소에서 자연분만한 임신이나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산과력을 가진 건강한 초산모와 만삭으로 출생한 건강한 생후 4~6주의 영아 28명을 대상으로 1986년 12월 1일부터

1987년 5월 15일까지 5개월 반에 걸쳐 가정방문을 통해 수유(모유 혹은 인공영양)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아의 일련의 유희적 상호작용을 비디오를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이때 소형의 마이크를 모에게 장치하여 모·아의 어조나 음성과 말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수집된 비디오테이프에 근거하여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척도(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MIPIS)에 준해 관찰, 분석 및 평정하였으며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전산처리(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 t 검정 f 검정, Chrombach α 등)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가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희적 행동(모의 행동패턴)은 총 10개문항으로 평균점수 34.05 표준편차 9.58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상냥한 표현, 부드럽고 온화한 보살핌, 시각적 상호작용, 애정적인 어조, 영아에게 웃음을 띄게하려는 노력등 온화한 보살핌과 정서적 반응은 잘하는 편이었으나 영아의 자발적인 활동의 견제, 영아를 자극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자극되거나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교대로 자극을 주지않고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흔들어주기, 잡아들이기, 운동시키기 중 1~3가지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등 의미없는 반복을 보였으며 기술이나 훈련을 필요로하는 실제적 과업중심 활동의 반응은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이는 영아를 포로싸는 전통적 육아방식과 성장,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영아가 그의 모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영아의 행동패턴)은 총 3개문항으로 평균점수 3.98, 표준편차 0.75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깨어있거나 적극적으로 주위를 탐색하거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거나 즐거워하는 등 영아의 상태조절과 조직통제는 잘하는 편이었으나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거나 시각적 교환의 회피등 시각적 상호작용은 잘못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응시 및 추적능력의 발달이 2개월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사대상 영아들이 아직 이러한 능력이 미발달인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3. 모와 영아가 동시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행동(모아의 동시적 행동패턴)은 총 3개문항으로 평균점수 8.89, 표준편차 3.76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아가 '즐거운 교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말, 몸짓, 흥분된 감정의 교류, 무언의 짜증에 대한 반응으

로 상호작용을 멈추는등 같은 방향으로의 공동조절과 감정의 교류는 잘하는 편이었으나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모와 영아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상대방부터 반응이 없는 등 동시적 상호작용은 잘못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행동적 테파트리, 영아의 각성상태 유지를 위한 노력 및 반응성에 있어 모·아의 동시적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4. 모·아가 상호적 반응으로 나타내는 유희적 행동(모·아의 상호적 행동 패턴)은 총 16개문항으로 평균점수 53.78, 표준편차 14.99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유희적 상호작용의 방식에 있어 뽀뽀, 피부접촉, 발성, 얼굴표정등 모가 자기자신을 사용하기 보다는 장난감, 음악등의 유희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등 비생물과의 유희적 상호작용을 하였는데, 이는 사물에 대한 시각적 관심은 응시 및 추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되며, 또한 조사대상 '영아들이 손과 눈의 협동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단계에 있다는데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사려된다.

5.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중 초산모의 교육수준, 유희도구의 사용여부 및 영아의 성별에 따른 문항별(1~16), 모의 행동패턴($F=0.6104$, $T=0.81$, $T=0.26$), 영아의 행동패턴($F=0.7821$, $T=0.49$, $T=0.06$), 모아의 동시적($F=0.9929$, $T=0.25$, $T=0.38$) 및 상호적 행동패턴($F=0.8378$, $T=0.50$, $T=0.06$)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참 고 문 헌

1. Als, H. The new born communic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1977, 27(2), 66~72.
2. Als, H., Lester, B., & Brazelton, t.B. Dynamics of the behavioral organization of the premature infant, In T. Field (ed.), *Infants born at risk*, New York: SP Medical and Scientific Books, 1979.
3. Barnard, K.E. Nursing research relat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H.H. Werley & J.J. Fitzpatric (eds.),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New York: Springer, 1984.
4. Belsky, Jay (ed.) *In the begining: Readings on infan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5. Bobak, Jenson,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The C.V. Mosby Company, 1985.
6. Bleharm M.C., Lieberman, A.F., Ainsworth, M.S., *Early face to face interaction and its relation to later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1977.
7. Brazelton, T.B. Joint regulation of neonate-parent behavior, In E.Z. Tronick(ed.), *Social interchange in infancy*,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1982.
8. Brown, C.C., and Gottfried, A.W., *Play interactions: the role of toys and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development*, Johnson and Johnson baby products company, pediatric round table series; ii, 1985.
9. Censullo, M.M., Lester, B., Hoffman, J., *Rhythmic patterning in mother-new-born interaction*, *Nursing Research*, 34(b) : 342~345, 1983.
10. Clarke-Stewart, K.A. *Parent education in the 1970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981, 3(6), 69~78.
11. Condon, W.S., Sander, L.W.,(1974), *Synchrony demonstrated between movement of the neonate and adult speech*, *Child development*, 1985.
12. Emde, R.N., *Emotional availability: A reciprocal reward system for infants and parents with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psychosocial disorders*, In P.M. Taylor (ed.), *Parent-infant relationships*, New York: Grune & Stratton, 1980.
13. Field, T.M., *Intervention for high-risk infants and their parent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981, 3(6), 69~78.
14. Field, T., *Interaction coaching for high-risk infants and their parents*, In H.A. Moss, R. Hess, & C. Swift (eds.),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infants*, New York: Haworth Press, 1982.
15. Greenspan, S.L., & Porges, S.W., *Psychopathology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Clinical perspectives on the organization of sensory and affective-thematic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1984, 55(1), 49~70.
16. Greenspan, Stanley I. *Psychopathology and adaptation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Principles of clinical diagnosis and preventive interven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1.
17. Leiderman, P. Herbert, Tulkin, S.R., A & Rosenfeld, Anne (eds.), *Culture and infancy: Variations in the human experi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18. Lewis, Michael, and Rosenblum, L.A. *The effect of the infant on its caregiver*, New York: Wiley, 1974.
19. Osofsky, Jo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79.
20. Reeder M., *Maternity nursing 16th (eds.)*, Lippincott company, 1987.
21. Stern, Daniel, *The first relationship*, Cambridge Mass.: Harvard, 1977.
22. Stern, D.N., *Mother and infant at play the dyadic interaction involving facial vocal and analyze behaviours*, in Lewis, M., Rosenblum, L.A. (eds.), *The effect of the infant on its caregiver*, New York: John Wiley, 1974.
23. Sigel, Irving E.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1985.
24. Tronick, E., Als, H., & Brazelton, T.B. *Mutuality in mother-infant intera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1977, 27(2), 74~79.
25. Tronick, Edward Z. (ed.), *Social interchange in infancy*, Baltimore: Univ. Park Press, 1982.
26. Wachs, T.D., & Gruen, G., *Environmental stim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Zero to Three*, 1984, 5(2), 6~10.
27. Walker, L.O., *Early attitudes and the parent infant relationship*, in exceptional infant IV. D Sawin, R. Hawkins, L. Walker, and J. Penticuf (eds.), New York: Brunner/Mazel, 1980.
28. Walker, L.O., and Thompson, E.T., *Mother 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In analysis of current assessment strategies in the health care of young children and childbearing families,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82.
29. Walker, L.O., Crain, H., Thompson, E.,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fy in the postpar-*

tum period: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1986.

30. Walker, L.O., Crain, H., Thompson, E., Mothering behavior and maternal role attainment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Nursing Research 1986b.

31. 柳岸津, 韓國의 傳統育兒方式,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부록>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측정척도

1. 어머니가 영아를 안는 유형

- 1)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영아를 안아주지 않거나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거리를 둔다.
- 2) 꼭 껴안아주는 주기를 달리하여 영아가 자발적인 자율활동을 하는 것을 견제한다
- 3) 계속 가만히 받쳐줌으로써 영아가 자율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한번씩 안는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 4) 주기적으로 안아줌으로써 영아가 자율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어머니는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안는 자세를 바꾸지만 상호작용을 촉진시키지는 않는다.
- 5) 친밀한 신체접촉과 영아의 속박을 피하기 위하여 약간의 거리를 가지는 것을 번갈아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안아 준다.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머니는 안는 자세를 바꾸어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2. 어머니의 애정 표현(의도적)

- 1) 어머니가 긴장되고(긴장되거나) 근심스럽고(근심스럽거나) 짜증을 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영아에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쾌함을 보인다.
- 2) 어머니가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영아에게 냉담한 듯이 보인다. 영아에게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다.
- 3) 평범하거나 상냥한 표현
- 4) 어머니가 세심하며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이는 듯이 한다. 영아에게 미소를 덜 띠고 있다.
- 5) 어머니가 기쁨과 애정을 표현하는 듯이 보인다. 어머니가 영아의 행동에 따라 표현을 달리한다. 영아에게 미소를 짓는다.

3. 어머니의 애정표현(비의도적 표현-횟수)

- 1) 영아의 행동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웃어준다.
- 2) 영아에게 웃어주지 않는다.
- 3) 웃어주기는 하지만 영아의 행동과는 무관하다(경서적 미소, 미소면 얼굴)
- 4) 영아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가끔 웃어준다(1~2번)
- 5) 영아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자주 웃어준다(3번 내지 그 이상)

4.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유형

- 1) 영아의 몸을 갑작스럽게 다루는 거친 보살핌. 덜 쫓겨 움직이는 자세, 영아는 불안한 울음으로 반응한다.
- 2) 어색하고 조직적인 보살핌. 영아는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듯이 보이고 보살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 3) 조직적인 보살핌과 부드러운 보살핌의 교대. 영아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 4) 매우 온화한 보살핌. 일정간격의 행동으로 영아의 몸을 부드럽게 다룬다. 영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되고, 예상되는 물질을 추적할 수 있다.
- 5) 일관된 온화한 보살핌. 일정간격의 행동으로 영아의 몸을 부드럽게 다룬다. 영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되고, 예상되는 몸짓으로 추적한다. 영아가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5. 영아가 깨어있는 상태의 반응의 주요 단계

- 1) 영아가 꾸벅꾸벅 준다. 눈이 완전히 감겼거나 반쯤 감겼다. 결코 깨어날 수 없을 듯이 보인다.
- 2) 꾸벅꾸벅 준다. 영아가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있

나, 정신이 돌아오는 잠깐동안(3초 미만)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저 허공을 쳐다보는 듯이 보인다.

- 3) 영아가 깨어있는 듯이 보이고, 생물체나 무생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졸고 있는 듯이 보이거나 자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 4) 생물체나 무생물체에 시각적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 있다.
- 5) 적극적이며 깨어 있다. 생물체나 무생물체를 찾아서 주위를 살핀다.

6. 영아의 주요 감정 혹은 정서

- 1) 피로워하거나 상호작용중에 계속 운다. 영아는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에 전혀 호응할 수 없다.
- 2) 영아가 어느정도(중간정도) 고통스러워 보인다. 분명히 투정을 부리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얼굴을 돌린다.
- 3) 영아가 어머니의 행동에 무관심하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듯이 보인다.
- 4) 영아가 편안해 보이고, 어머니가 상호관계를 시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듯이 보인다.
- 5) 영아는 편안한 상태이고 상호작용을 즐겨워한다. 영아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호응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상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려 할 수도 있다.

7. 어머니의 시각적 상호작용

- 1) 어머니가 영아의 시각 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
- 2) 어머니가 영아의 시각 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나 영아가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게 어머니가 피하거나 영아의 위치를 옮긴다.
- 3) 어머니가 영아를 바라보며 잠깐 동안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지나 얼굴을 마주 대하기 위하여 다가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5초나 그 미만)
- 4) 어머니가 영아를 바라보며 오랜동안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지며(5~10초),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하여 다가가거나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 5) 어머니가 영아를 바라보며 오랜동안의 시각적 상호작용을 가지며(10초 그 이상),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하여 다가가거나 뒤로 물러선다. 또한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혹은

내거나 얼굴 표정을 사용한다.

8. 영아의 시각적 상호작용

- 1) 영아가 어머니의 시각 한계내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
- 2) 영아가 어머니의 시각 한계 내에 얼굴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재빨리 얼굴을 피하거나 자세를 바꾸어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다.
- 3) 영아가 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의 시각 한계내에 있을 때 어머니와의 시각적 교환(눈맞춤)을 하려한다(5~10초).
- 4) 영아가 어머니의 얼굴이 자기의 시각 한계내에 있을 때 어머니와의 시각적 교환(눈맞춤)을 하려한다(10초나 그 이상).
- 5) 주위 살피기, 머리의 자세, 얼굴 표정을 통하여 영아는 얼굴을 마주 대하기 위하여 적극적(능동)으로 어머니를 찾는다(10초나 그 이상)

9. 생물, 비생물과의 유희적 상호작용의 유형

- 1) 어머니가 영아와의 상호관계를 가질때 주로 비생물체를 사용한다. 어머니는 상호관계에 있어 음성이나 얼굴표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2)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 비생물체를 사용한다. 가끔씩 상호작용에 음성을 사용한다.
- 3) 어머니가 때때로 얼굴표정과 음성을 사용하면서 상호작용에서 비생물체와 자기자신을 똑같이 사용한다. 어머니는 영아와 놀이를 하기보다는 영아를 즐겁게 하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 4)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가질때(종종 얼굴표정과 음성을 곁들이며) 주로 자기자신을 이용한다. 비생물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5) 어머니는 자극의 주요원천으로 자기자신(보조 피부접촉, 얼굴표정)을 이용한다. 종종음성을 사용한다. 영아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비생물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어머니는 영아에게 놀아주기 보다는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한다.

10. 어머니의 발성의 유형(어조와 내용)

- 1) 어조와 내용이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어머니가 상호작용의 에피소드가 이루어지는 동안 영아에게 발성을 하지 않는다.
- 2) 중립적이거나 애정적인 내용을 비판적인 어조로

영아에게 말한다.

- 3)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중립적인 어조로 영아에게 말한다.
- 4)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애정적인 어조로 영아에게 말한다.
- 5) 애정적인 어조와 내용으로 영아에게 말한다. 애정이 깃든 방식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11. 어머니의 발성의 유형-횟수

- 1) 영아에게 음성을 내지 않는다(말을 하지 않는다).
- 2) 영아에게 자주 음성을 내고, 영아의 행동과 무관한 의견을 말한다.
- 3) 영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1~2번 음성을 낸다. 흥내를 내는것은 아니다.
- 4) 영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2번 이상 음성을 내거나 흥내낸다.
- 5) 영아의 행동에 반응하여 자주(2번 이상) 음성을 낸다. 영아와 함께 발성을 흥내 내어본다.

12. 웃음을 띠게 하는 어머니의 노력

- 1) 영아를 웃게 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 2) 어머니가 영아를 웃게 하려고 발성한다.
- 3) 어머니가 아무 부분이나 만져주고(예, 배를 문지른다) 발성할 수도 있다.
- 4) 어머니가 아무부분이나 만져준다. 영아가 웃게 하기 위하여 음성을 내거나 얼굴 표정을 짓는다.
- 5) 어머니가 영아를 웃게 하기 위하여 음성과(혹은 음성이나) 얼굴표현이 결합된 특정한 전술적인 자극을 이용한다(예, 영아의 볼부분을 만져 주거나 어루만지거나 가볍게 두드린다).

13. 상호작용의 근육운동 감각적 특성

- 1) 영아의 신체에 자극을 주지 않거나, 어머니가 유해한 자극(쭈뼌 찌르기, 세게 두드리기, 꼬집기)을 가한다.
- 2) 어머니가 영아를 자극하는데 다음중의 하나를 이용한다. -뽀뽀, 어루만지기, 애무, 흔들어주기, 잡아늘이기(혹은 쭈뼌이), 운동시키기(혹은 손발 움직이기)-
- 3) 어머니가 영아를 자극하는데 위의 것중 두가지를 이용한다.
- 4) 어머니가 영아를 자극하는데 위의 것 중 세가지나

그 이상을 이용한다.

- 5) 어머니가 영아를 자극하는 위의 절차중 적어도 3~4가지를 이용하는데, 영아가 지나치게 자극되거나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준다(즉, 수동적인 자극과 능동적인 자극을 번갈아 행한다).

14.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자간의 특성

- 1)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 어머니 아영아 둘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상대방부터의 반응이 없다.
- 2) 상호작용의 시작과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이 자주 지연된다.
- 3) 상호작용의 시작과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이 약간 지연된다(1~2번 정도만)
- 4) 상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기는 하나 약간의 작용이 있은 후(1분 이상)에만 나타난다. 어머니는 영아의 암시에 대한 반응으로 자극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 5)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의 시작에서부터 동시적이다. 어머니는 영아의 기분에 따라 지체없이 자극을 바꾼다.

15. 정서의 동시성

- 1) 즐거운 교류가 없다(영아는 불안해 보이고, 어머니는 근심스럽거나 따분해 보인다).
- 2) 영아와 어머니중 한쪽은 즐거운 교류를 찾는듯이 보이나 상대는 다른 기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한다(예, 불안, 폐쇄).
- 3) 영아와 어머니중 한쪽은 즐거운 교류를 찾는듯이 보이나, 상대는 반응하지 않는다.
- 4) 어머니와 영아가 즐거운 교류를 가지나 약간 지연된다. 한쪽이 상대에게 말, 몸짓, 흥분된 가정 나누기 등으로 적절히 반응한다.
- 5) 어머니와 영아가 거의 동시적으로 즐거운 교류를 가진다.

16. 상호작용의 종결

- 1) 어머니가 영아의 참여도를 무시한채 어머니의 상대로 상호작용을 멈춘다.
- 2) 어머니가 영아를 불안의 연장 상태에 도달할때까지 둔 다음(15~30초) 상호 작용을 멈춘다.
- 3) 어머니가 약간의 웃음이나 불안함(5~10초동안의)

투정)에 대한 반응으로 멈춘다.

- 4) 어머니는 영아의 무언의 짜증(몸구부르기, 얼굴 돌리기 등)에 대한 반응으로 멈춘다. 반응이 약간 늦을 수도 있다.
- 5) 어머니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영아를 자극하고 있다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영아의 세세한 암시에 상호작용을 멈춘다. 즉각적인 무

언의 암시.

* 이 측정척도는 수유의 상호관계를 위한 Gail Price의 모자의 적응측정 척도를 수정한 것을 기초로 하여 Earl Thompson, Jody Balrd, Sarn Goodman, Susan Bryant가 발전시킨 것이다.